자누스틴메트 50/500mg 50/1000mg 100/1000mg
엑스알서방정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전문의약품

자누스틴메트엑스알서방정 50/500mg 50/1000mg 100/1000mg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 의약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첨부문서를 주의 깊게 읽고,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조성·성상]

1. 1정당 1정 중
- **자누스틴메트엑스알서방정50/500정리그램** : 이 약 1정 중
  - 유효성분 :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별규) 56.69mg
    (시타글립틴으로서 50밀리그램)
    메트포르민염산염(BP) 500mg
  - 첨가제(타르색소) : 적색2호, 청색1호, 청색2호
  - 기타첨가제 : 경질무수규산, 라우릴황산나트륨, 마그네슘스테아르산염, 부틸메타크릴레이트-히드록시에틸메틸메타크릴레이트-스티렌-메타크릴산-메틸에스테르공중합체, 히프로멜로오스
- **자누스틴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정리그램** : 이 약 1정 중
  - 유효성분 :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별규) 56.69mg
    (시타글립틴으로서 50밀리그램)
    메트포르민염산염(BP) 1000mg
  - 첨가제(타르색소) : 청색1호, 청색2호, 황색4호
  - 기타첨가제 : 경질무수규산, 라우릴황산나트륨, 부틸메타크릴레이트-히드록시에틸메틸메타크릴레이트-스티렌-메타크릴산-메틸에스테르공중합체, 히프로멜로오스, 탤크, 트리아세틴, 폴리에틸렌글리콜6000, 히프로멜로오스
- **자누스틴메트엑스알서방정100/1000정리그램** : 이 약 1정 중
  - 유효성분 :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별규) 113.37mg
    (시타글립틴으로서 100밀리그램)
    메트포르민염산염(BP) 1000mg
  - 첨가제(타르색소) : 적색40호, 청색1호, 청색2호
  - 기타첨가제 : 경질무수규산, 라우릴황산나트륨, 부틸메타크릴레이트-히드록시에틸메틸메타크릴레이트-스티렌-메타크릴산-메틸에스테르공중합체, 히프로멜로오스, 탤크, 트리아세틴, 폴리에틸렌글리콜6000, 히프로멜로오스

2. 성상

- **자누스틴메트엑스알서방정50/500정리그램** : 연한 피랍색의 양면이 볼록한 타원형 서방성 필름코팅정제
- **자누스틴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정리그램** : 밝은 녹색의 타원형 서방성 필름코팅정제
- **자누스틴메트엑스알서방정100/1000정리그램** : 밝은 피랍색의 양면이 볼록한 타원형 서방성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이 약은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절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용법·용량]

항당뇨요법에 있어서 이 약의 용량은 각 성분의 1일 최대용량을 한도 메트포르민 2000 mg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환자의 현재 치료요법, 유효성, 내약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약은 메트포르민으로 안전 유지량에 서서히 증량 시 위장관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1일 1회 또는 저녁 식후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시타글립틴으로서 50밀리그램(1정)씩 1일 2회 투여한다. 단, 1일 최대용량은 시타글립틴으로서 100밀리그램(2정)을 초과하지 않는다.

- 1정 100/1000 mg 서방정을 1일 1회 투여하는 환자에서 1일 2회 서방정 메트포르민 1000 mg을 투여하는 환자로 전환하여 투여하는 경우 유사한 혈장 메트포르민 농도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정 50/500 mg 서방정을 1일 2회 투여하는 환자에서 1일 2회 1000 mg 서방정을 투여하는 환자로 전환하여 투여하는 경우 유사한 혈장 메트포르민 농도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시타글립틴

1) 과민반응: 사전 후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중증의 과민반응이 보고되었으며, 이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및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포함한 박각성피부질환을 포함한다. 이것은 투특성 다수의 안전성 단으로부터 재검토 보고되었기 때문에, 발열 반드를 신중히 고려 adenoma/carcinoma) 발생이 증가했고, 하여야 한다. 만약 복용중에 과민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을 중단하고 다른 대체 치료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췌장염: 시타글립틴을 투여한 환자에서 치명적이거나 중증일 수도 있는 췌장염이 보고되었다. 췌장염의 증상에는 지속적인 심한 복통이 포함되며 통증은 종종 등으로 방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 약을 중단하고 적절한 대체 치료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수술: 수술과정중인 환자 또는 수술 후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환자에서 시타글립틴 투여 경험은 없다.

메트포르민염산염

1) 유산산증: 유산산증은 드물기는 하나 심각하며, 이 약의 치료중 메트포르민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대사성 합병증이다.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급성신기능이하, 심폐질환 및 패혈증 상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50% 치명적이다. 유산산증은 조직의 유의한 관류저하와 지속소화이 있을 때, 당뇨병을 포함하는 병리생리학적 상태와 같이 급격히 나타날 수 있다. 유산산증은 혈중 젖산 농도 증가(5 mmol/L 초과), 혈중 pH 저하(7.35), 음이온 간의 차이가 늘어나 는 전해질 불균형과 젖산/피루브산염의 비가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메트포르민이 유산산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메트포르민의 혈중농도를 일반적으로 5 μg/m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메트포르민을 투여 받은 환자에 있어서 유산산증의 발현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적다(약간 환자 1,000명당 약 0.03건, 치명적인 경우는 없긴 환자 1,000명당 약 0.015건). 보고된 경우는 주로 많은 내 · 외과적인 문제가 병합된 경우와 많은 약물의 복합투여 등의 상태에서, 내인적 신장질환과 신장 관류저하를 포함하는 신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된 당뇨병 환자에서 일차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동맥질환, 신감염 혈자 등 참 조). 유산산증의 위험은 신기능 저하의 정도와 환자의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메트포르민염산염 항 참조).

2) 신기능의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유의한 혈액학적 변화를 이끄는가나 특정 간수송체 또는 신수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또는 신체 노곤 분비로서 배설되는 양이온 약물과 같이 이 약제 경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 메트로리은유기양이온수송체(Organic cation transporter, OCT1, OCT2, multidrug and toxin extrusion(MATE) 수송체의 기질이다.
- OCT1 억제제(베라파밀 등)와 병용 시 메트로르민의 약동가 저하될수 있음
- OCT1 유도제(리팜피신 등)와 병용 시 메트로르민의 위장관 흡수 및약효가 증가될 수 있음
- OCT2 및 MATE 억제제(시메티딘, 돌루테그라비르, 라니올린, 트리메트리프림, 반데타닙, 이사부코-니홀 등)와 병용 시 메트로르민의 신배설을 감소시킬 수 있어 메트로르민의 혈중 농도가 상승할 수 있음
- OCT2, OCT1 등시 억제제(시메티딘, 돌루테그라비르, 라니올린, 트리메트리프림, 반데타닙, 이사부코-니홀 등)와 병용 시 메트로 르민의 신배설 및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메트로르민과 이러한 약물을 병용 투여 할 경우 메트로르민의 혈중 농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특히 신장에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OCT 억제제/유도제는 메트로르민의 약효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메트로르민의 용량 조절을 고려할 수있다.

또한, 선택적 COX-II(Cyclo-oxygenase) 억제제를 포함한 비스테로이 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s),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s), 이뇨제(특히 루프 이뇨제) 등은 신기능에 불리한 영향을줄 수 있어 유산산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메트르르민 병용 투여 할 경우 신기능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8) 기타: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단일 병용투여 연구에서, 메트르르민과 프로프라놀롤, 메트르르민과 아뉴르로핀의 약동학적 상호 작용은 없었다. 메트르르민이 혈장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므로 살리실레이트, 설포아미드, 클로람페니콜 및 프로베네시드와 같은 단백결합률이 높은 약물과는 상호작용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에 대한 투여

임부를 대상으로 이 약 또는 이 약의 성분에 대한 적절한 대조연구가 없으므로 이 약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임부 또는 임신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2) 수유부에 대한 투여

시타글립틴은 젯드에서 유즙으로 분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메트포르민(≥1500 mg/일)으로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HbA1c 7% ~ 10%) 701명을 대상으로 시타글립틴 100 mg의 추가 병용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24 주,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 수행되었다. 24주 시점에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대한 위약 대비 시타글립틴 추가 병용요법의 HbA1c 감소 효과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개별 시험에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54주에 위약 대비 시타글립틴 추가 병용의 유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10~17세의 제2형 당뇨병 소아 환자에 대한 이 약 병용의 유효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10~17세의 제2형 당뇨병 소아 환자에 대한 이 약 병용의 안전성과 내약성은 성인 환자와 유사했다. 소아 환자에서 안술린 배정요법 여부와 상관없이 시타글립틴은 저혈당증 위험을 증가와 관련 없었다.

이 약은 10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 시험하지 않았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시타글립틴과 메트르르민은 대체로 신장으로 배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자는 신장기능이 감소되기 쉬우므로 환자의 신기능에 근거 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는 최소용량을 설정해야 한다. 고령 자는 장기적으로 신기능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시타글립틴

67기 전 임상시험에서 총 1787사(3884명) 중 65세 이상이 725명, 75세 이상이 61명이었다. 65세 이상 고 령자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젊은 환자에서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임상경험에 근거 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는 사이에 반응성에 차 이는 없었으나 일부 고령자에서 감수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메트르르민염산염

고령자와 성인 환자 간에 반응의 차이가 없다는 임상보고가 있으나, 메트르르민의 대조 임상 시험은 성인과 비교 하였을 때 고령자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령자 중 일부 환자를 확보해서 투여한다. 고령자는 간 기능 감소(간기능의 저하 시는 정상적 대사능이 없어서 질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메트르르민 약물의 투여를 주시 중지하고, 다른 적절하고 알맞은 조치를 취한다.

9) 저혈당 :

시타글립틴

임상시험에서 시타글립틴을 단독투여하거나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메트르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과 병용투여 시 저혈당의 발생빈도는 위약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했다. 다른 활성대조약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병용투여 시 저혈당의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이 임상시험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군에서 시행되므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발병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표 1.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르르민 초기병용요법: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

	환자수 (%)			
	위약	시타글립틴 100 mg 1일 1회	속방형 메트르르민 500 또는 1000 mg씩 1일 2회‡	시타글립틴 50 mg씩 1일 2회 + 속방형 메트르르민 500 또는 1000 mg씩 1일 2회‡
	176명	179명	364명	372명
설사	7 (4.0)	5 (2.8)	28 (7.7)	28 (7.5)
상기도감염	9 (5.1)	8 (4.5)	19 (5.2)	23 (6.2)
두통	5 (2.8)	2 (1.1)	14 (3.8)	22 (5.9)

† Intent-to-treat 피험자군

‡ 메트르르민 저용량,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의 통합치료.

속방형 메트르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 추가 병용투여

24주의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1일 2회 속방형 메트르르민으로 복용하는 환자에 시타글립틴 100 mg을 추가 병용투여 시 인크레틴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상기도감염(시타글립틴 15.5%, 위약 6.2%)과 비만두염(11.0%, 9.3%), 말초부종(8.3%, 5.2%) 및 두통(5.5%, 4.1%)이었다.

속방형 메트르르민 단독요법 또는 시타글립틴과 메트르르민 병용투여

안정된 용량의 안술린과 속방형 메트르르민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 100 mg 추가 병용투여 위약대조 24주 임상시험(시타글립틴 229명, 위약 233명)에서 인크레틴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유일한 이상반응은 저혈당이었다 (표 3 참조). 안술린 경험 기간(±속방형 메트르르민) 동안 추가로 이상을 투여 받는 환자들 대상으로 실시된 또 다른 24주 임상시험의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르르민 복용한 환자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과 속방형 메트르르민 투여군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없었다.

저혈당

모든 연구(7)에서 저혈당 이상반응은 모든 증상이 있었던 저혈당 보고에 근거하였다. 혈당측정이 꼭 수반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부분의 저혈당 보고(77%)는 혈당측정 시 70 mg/dL 이하였다.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르르민을 설포닐우레아 또는 안술린과 병용투여했을 때 하나 이상의 저혈당 이상반응을 나타낸 환자의 비율은 위약군보다 높았다 (표 3 참조).

표 3.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르르민을 설포닐우레아 또는 안술린과 병용투여한 위약대조 임상시험: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보고된 저혈당의 발생률*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속방형 메트르르민과의 추가 병용요법 (24주)	시타글립틴 100 mg + 속방형 메트르르민 + 글리메피리드 (N=116명)	위약 + 속방형 메트르르민 + 글리메피리드 (N=113명)
총 발생수 (%)	19 (16.4)	1 (0.9)
비율(보고건/환자-년수)†	0.82	0.02
중증의 저혈당 (%)†	0 (0.0)	0 (0.0)
안정된 용량의 안술린 또는 안정된 용량의 안술린 및 속방형 메트르르민과의 병용요법 (24주)	시타글립틴 100 mg + 속방형 메트르르민 + 안정된 용량의 안술린 (N=229명)	위약 + 속방형 메트르르민 + 안정된 용량의 안술린 (N=233명)
총 발생수 (%)	35 (15.3)	19 (8.2)
비율(보고건/환자-년수)†	0.98	0.61
중증의 저혈당 (%)†	1 (0.4)	1(0.4)
용량 조절이 없는 안술린 또는 용량 조절이 없는 안술린 및 속방형 메트르르민과의 병용요법 (24주)	시타글립틴 100 mg + 속방형 메트르르민 + 용량 조절이 없는 안술린 (N=286명)	위약 + 속방형 메트르르민 + 용량 조절이 없는 안술린 (N=283명)
총 발생수 (%)	71 (24.9)	107 (37.8)
비율(보고건/환자-년수)†	1.7	3.5
중증의 저혈당 (%)†	8 (2.8)	11 (3.9)

* 저혈당 이상반응은 모든 증상이 있었던 저혈당 보고에 근거하였으며 혈당 측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었다; Intent to treat 군

† 총 발생수에 근거함 (환 사람이 여러 건을 보고할 수도 있음)

‡ 중증의 저혈당은 의학적 지지를 필요로 하거나 의식이 저하된 수준이거나 의식을 잃게나 발작하는 경우로 정의되었다.

저혈당 이상반응의 총 발생빈도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위약군에서 0.6%, 시타글립틴 단독투여군에서 0.6%, 속방형 메트르르민 단독 투여군에서 0.8%, 속방형 메트르르민과 시타글립틴을 병용투여한 군에서 1.6%였다. 속방형 메트르르민 단독 투여로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았던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시타글립틴 추가 병용시 1.3%, 위약 추가 병용시 2.1%였다.

로시글리타존 및 속방형 메트르르민에 시타글립틴을 추가 병용투여한 연구에서 18주까지 저혈당의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2.2%, 위약 투여군에서 0.0%였고, 54주까지는 각각 3.9%와 1.0%였다.

혈액학적 및 심전도(ECG)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르르민 병용투여로 인하여 혈색소후 또는 ECG(QTc 간격 포함)에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췌장염

시타글립틴 100 mg/일 군(N=5429)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조군(활성대조약 또는 위약)(N=4817)에 무작위 배정된 10,246명 환자에 대한 19개 이중맹검 임상시험의 결과를 통한 분석하였을 때, 각 군에서의 급성 췌장염의 발생률은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1 이었다 (시타글립틴 군에서는 47명 환자-년수 중 4명의 환자에서, 대조군에서는 3942 환자-년수 중 4명의 환자에서 보고됨). TECOS 심혈관 계 안전성 임상시험에서, 급성 췌장염의 발생률은 시타글립틴 군에서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11(23/7, 3320명, 25건), 위약 군에서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09(12/7, 3398명, 17건)으로 보고되었다. [1. 경고, 시타글립틴, 2.제품명 항, TECOS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항 참조]

시타글립틴

시타글립틴 단독요법에서 인크레틴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 중 기장 빈번히 보고된 것은 비만두염이었다.

세균성 메트르르민

골관절염과제도 요법에 세균성 메트르르민 또는 위약을 추가 병용투여한 24주 임상시험에서, 병용투여 군에서 기장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5% 초과)으로 위약보다 높은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저혈당(설사 병용 메트르르민 13.7%, 위약 4.9%), 설사(12.5%, 5.6%) 및 구역(6.7%, 4.2%) 이었다.

TECOS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TECOS: Trial Evaluating Cardiovascular Outcomes with Sitagliptin)

시타글립틴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의 ITT(Intent-to-treat)군에 시타글립틴을 매일 100 mg (또는 기저상태에서 eGFR ≥ 30 및 < 50 mL/min/1.73 m2인 경우 매일 50 mg)를 투여한 환자 7,332명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 7,339명이 포함되었다. 이 임상시험에서 시타글립틴 또는 위약은 당화혈색소(HbA1c) 및 심혈관계(CV) 위험 인자와 관련된 각각의 일반적인 치료에 추가로 투여되었다. 시타글립틴 투여 시 주요한 심혈관계 질환에 기인하 여 사망한 환자들의 비율은 시타글립틴 투여군과 위약군에서 12.4%로 유사하였다.

중증의 저혈당의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2.2%(160명,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78), 위약 투여군에서 1.9%(143명,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70)로 보고되었다. 인슐린 및/또는 설포닐우레아를 투여 받은 환자들 중, 중증의 저혈당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2.7%(138/5,021명), 위약 투여군에서 2.5%(125/4,931명)였고, 인슐린 및/또는 설포닐우레아를 투여 받지 않은 환자들 중, 중증의 저혈당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1.0%(22/2,311명), 위약 투여 군에서 0.7%(18/2,408명)였다. 확진된 급성 췌장염의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0.3%, 위약 투여군에서 0.2%였다.

실험실적 검사

시타글립틴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르르민을 투여한 군에서 실험실적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7.6% 이고, 위약과 속방형 메트르르민을 투여받은 군에서는 8.7% 으로 유사하였다. 임상시험에서 호중구의 증가에 기인한 백혈구치의 약간의 증가(위약 투여시와 약 200 cells/μL 차이; 평균기준치 약 6600 cells/μL)가 관찰되었다. 이런 차이는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으나 모든 연구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며, 임상검사치의 변화가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12주간의 연구에서 91명의 안정 신장애환자와 37명의 중등도의 신장애환자가 시타글립틴 50 mg으로 무작위 배정되었고 같은 정도의 신장애를 가진 148명의 환자는 위약으로 배정되었다. 혈청크레아티닌의 평균(표준오차) 증가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0.12 mg/dL(0.04), 위약투여군에서 0.07 mg/dL(0.07) 이었다. 위약과 비교시 활성크레아티닌 증가의 임상적 유의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메트르르민염산염

29주간의 메트르르민의 대조임상시험에서 약 7%의 환자에서 시험 전에 정상이었던 혈청 바타민 B12값이 임상적 증후 없이 정상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B12-intrinsic factor complex로부터 B12 흡수가 저해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감소는 매우 드물게 빈혈을 수반하였으며, 메트르르민의 투여 중지나 바타민 B12를 보충함으로써 빠르게 회복된다.

2) 시판 후 이상반응

다음은 시타글립틴의 시판 후 메트르르민 병용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다른 혈당강하제와의 병용투여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로 확인된 이상반응이다. 이 이상반응은 불특정 다수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발병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발진, 두드러기, 피부혈관염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포함한 박각성피부질환을 포함한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10. 소아에 대한 투여, 15) 췌장염 항 참조). 간효소치 상승, 치명적/비치명적 출혈성 또는 피사성 췌장염을 포함하는 급성 췌장염 [1. 경고, 시타글립틴, 2) 췌장염 항 참조]; 급성신부전(메트르르민 유발을 포함한 신기능 악화, 상기도 감염; 비만두염; 변비; 구토; 두통; 중증 및 장애를 동반하는 관절통 [5. 일반적 주의, 15) 중증 및 장애를 동반하는 관절통 항 참조]; 수포성 유사천포창 [5. 일반적 주의, 17) 수포성 유사천포창 참조]; 근육통; 시지통; 등 통증; 간염; 황달; 간기능 검사치 이상(간세포성, 담즙정체성 또는 혼합성); 혈소판감소증; 혈트판감소증.

6. 일반적 주의

1) 유산산증: 유산산증은 드물기는 하나 심각하며, 이 약의 치료중 메트르르민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대사성 합병증이다.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급성신기능이하, 심폐질환 및 패혈증 상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50% 치명적이다. 유산산증은 조직의 유의한 관류저하와 지속소화이 있을 때, 당뇨병을 포함하는 병리생리학적 상태와 같이 급격히 나타날 수 있다. 유산산증은 혈중 젖산 농도 증가(5 mmol/L 초과), 혈중 pH 저하(7.35), 음이온 간의 차이가 늘어나 는 전해질 불균형과 젖산/피루브산염의 비가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메트르르민이 유산산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메트르르민의 혈중농도를 일반적으로 5 μg/m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메트르르민을 투여 받은 환자에 있어서 유산산증의 발현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적다(약간 환자 1,000명당 약 0.03건, 치명적인 경우는 없긴 환자 1,000명당 약 0.015건). 보고된 경우는 주로 많은 내 · 외과적인 문제가 병합된 경우와 많은 약물의 복합투여 등의 상태에서, 내인적 신장질환과 신장 관류저하를 포함하는 신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된 당뇨병 환자에서 일차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동맥질환, 신감염 혈자 등 참 조). 유산산증의 위험은 신기능 저하의 정도와 환자의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메트르르민염산염 항 참조).

2) 신기능의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유의한 혈액학적 변화를 이끄는가나 특정 간수송체 또는 신수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또는 신체 노곤 분비로서 배설되는 양이온 약물과 같이 이 약제 경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 메트르르민유기양이온수송체(Organic cation transporter, OCT1, OCT2, multidrug and toxin extrusion(MATE) 수송체의 기질이다.
- OCT1 억제제(베라파밀 등)와 병용 시 메트르르민의 약효가 저해될수 있음
- OCT1 유도제(리팜피신 등)와 병용 시 메트르르민의 위장관 흡수 및약효가 증가될 수 있음
- OCT2 및 MATE 억제제(시메티딘, 돌루테그라비르, 라니올린, 트리메트리프림, 반데타닙, 이사부코-니홀 등)와 병용 시 메트르르민의 신배설을 감소시킬 수 있어 메트르르민의 혈중 농도가 상승할 수 있음
- OCT2, OCT1 등시 억제제(시메티딘, 돌루테그라비르, 라니올린, 트리메트리프림, 반데타닙, 이사부코-니홀 등)와 병용 시 메트 르민의 신배설 및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메트르르민과 이러한 약물을 병용 투여 할 경우 메트르르민의 혈중 농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특히 신장에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OCT 억제제/유도제는 메트르르민의 약효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메트르르민의 용량 조절을 고려할 수있다.

또한, 선택적 COX-II(Cyclo-oxygenase) 억제제를 포함한 비스테로이 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s),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s), 이뇨제(특히 루프 이뇨제) 등은 신기능에 불리한 영향을줄 수 있어 유산산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메트르르민 병용 투여 할 경우 신기능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8) 기타: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단일 병용투여 연구에서, 메트르르민과 프로프라놀롤, 메트르르민과 아뉴르로핀의 약동학적 상호 작용은 없었다. 메트르르민이 혈장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므로 살리실레이트, 설포아미드, 클로람페니콜 및 프로베네시드와 같은 단백결합률이 높은 약물과는 상호작용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에 대한 투여

임부를 대상으로 이 약 또는 이 약의 성분에 대한 적절한 대조연구가 없으므로 이 약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임부 또는 임신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2) 수유부에 대한 투여

시타글립틴은 젯드에서 유즙으로 분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메트르르민(≥1500 mg/일)으로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HbA1c 7% ~ 10%) 701명을 대상으로 시타글립틴 100 mg의 추가 병용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24 주,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 수행되었다. 24주 시점에 메트르르민 병용요법에 대한 위약 대비 시타글립틴 추가 병용의 HbA1c 감소 효과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개별 시험에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54주에 위약 대비 시타글립틴 추가 병용의 유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10~17세의 제2형 당뇨병 소아 환자에 대한 이 약 병용의 유효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10~17세의 제2형 당뇨병 소아 환자에 대한 이 약 병용의 안전성과 내약성은 성인 환자와 유사했다. 소아 환자에서 안술린 배정요법 여부와 상관없이 시타글립틴은 저혈당증 위험을 증가와 관련 없었다.

이 약은 10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 시험하지 않았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시타글립틴과 메트르르민은 대체로 신장으로 배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자는 신장기능이 감소되기 쉬우므로 환자의 신기능에 근거 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는 최소용량을 설정해야 한다. 고령 자는 장기적으로 신기능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시타글립틴

67기 전 임상시험에서 총 1787사(3884명) 중 65세 이상이 725명, 75세 이상이 61명이었다. 65세 이상 고 령자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젊은 환자에서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임상경험에 근거 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는 사이에 반응성에 차 이는 없었으나 일부 고령자에서 감수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메트르르민염산염

고령자와 성인 환자 간에 반응의 차이가 없다는 임상보고가 있으나, 메트르르민의 대조 임상 시험은 성인과 비교 하였을 때 고령자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령자 중 일부 환자를 확보해서 투여한다. 고령자는 간 기능 감소(간기능의 저하 시는 정상적 대사능이 없어서 질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메트르르민 약물의 투여를 주시 중지하고, 다른 적절하고 알맞은 조치를 취한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시타글립틴

시타글립틴의 임상시험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타글립틴을 800 mg까지 단회투여 한 경험이 있다. 시타글립틴 800 mg을 투여한 연구에서 혈장 QTc의 증가가 최대 8.0 msec이며 전임상모으나 임상적으로 관련이 없었다. 시험에서 800 mg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험은 없다.

과량투여시에는 일반적인 대조치료(예를 들면 흡수되지 않은 약물을 위장관계로부터 제거하고 심전도를 포함한 임상모니터링을 실시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조제인 치료를 실시한다.

시타글립틴은 투석으로 일부 제거될 수 있다. 임상시험에서 투여량의 약 13.5%가 3~4시간 이상의 혈액투석에 제거되었다. 장시간의 혈액투석이 임상적으로 적절한지은 고려되어야 한다. 시타글립틴이 복막투석으로 제거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메트르르민염산염

메트르르민염산염을 95 g까지 투여하였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유산산증이 일어나더라도 저혈당이 유발되지는 않는다. 메트르르민은 양호한 혈액학적 조건에서 170 mL/분에 이르는 청소율로 투석된다. 따라서 메트르르민 과량투여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축적된 약물을 제거하기 위해 혈액 투석은 유용할 수 있다.

11. 전문가를 위한 정보

1) 임상시험 정보

식사 및 운동요법으로 또는 식사 및 운동요법과 함께 다른 혈당강하제를 투여하였을 때 혈당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제2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르르민의 병용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다. 각 시험에서 이 약이 적절 투여되지는 않았으나, 이 약과 시타글립틴 및 메트르르민 단일제 병용투여 간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보정하였다.

메트르르민과 시타글립틴의 초기 병용 요법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HbA1c 7.5%~11%) 1,091 명을 대상으로 시타글립틴 및 메트르르민의 초기 병용요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24주,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오인 설계 임상시험이 수행되었다.

이 시험에서 시타글립틴 및 메트르르민 초기 병용요법은 위약, 메트르르민 단독요법 또는 시타글립틴 단독요법과 비교하여 HbA1c 의 유의한 개선을 나타냈으며(표 8), FPG 및 2-h PPG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p<0.001). 위장간계 비교하였을 때, HbA1c의 기저상태로부터의 평균 감소는 HbA1c 기저상태가 더 높은 환자들에서 일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 메트르르민과 시타글립틴 초기병용의 유효성을 평가한 임상시험 결과 †

	위약	시타글립틴 100 mg 1일 1회	메트르르민 500 mg 1일2회	시타글립틴 50 mg 1일2회 + 메트르르민 500 mg 1일2회	메트르르민 1000 mg 1일2회	시타글립틴 50 mg 1일2회 + 메트르르민 1000 mg 1일2회
HbA1c(%)	N = 165	N = 175	N = 178	N = 183	N = 177	N = 178
기저상태 (평균)	8.68	8.87	8.90	8.79	8.88	8.76
기저상태로부터의 변화 (보정 평균*)	0.17	-0.66	-0.82	-1.40	-1.13	-1.90
위약 대비 차이 (보정 평균*)	–	-0.83‡	-0.99‡	-1.57‡	-1.30‡	-2.07‡
메트르르민 단독요법 대비 차이(보정 평균*)